

중국 조선족 주거의 공간구성 형태와 그 지역분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inese-korean dwelling spatial structure and its distribution in China

김 종 영 *	김 수 인 **
Kim, Jong Young	Kim, Soo In
김 승 제 ***	박 용 환 ****
Kim, Seung Je	Park, Yong Hwan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analyze the Chinese-Korean dwelling spatial structure and distribution of its area as a part of research for Chinese-Korean dwelling and village in China. The study area for this research was chosen three Chinese provinces located in north east part of China where the population of Chinese-Korean is high. Thirty villages which are located in the study area were used for this research. Five Chinese-Korean dwelling spatial structures and distribution of their area were found using this research

I. 서 론

중국 조선족 주거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 정보의 축적된 양도 적거니와 그간 발표된 연구나 조사의 범위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조선족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

서 본 연구팀은 <중국 조선족 주거와 취락에 관한 연구>라는 전체 연구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논문은 그 일환으로서 중국 동북 3성 즉,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조선족 주거의 공간구성 형태를 살펴보고 그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팀이 1995년 7월과 1996년 2월, 2회에 걸쳐 3개성을 답사하였으며 본 연구는 각 촌마다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 정리한 것이다. 조사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이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95-0600-04-02-3)

* 정희원, 계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조선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광운대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신기술연구소

****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길림성: 연길시, 용정시, 화룡현, 안도현, 왕청현, 훈춘시, 도문시, 돈화시, 길림시, 장춘시 에 소재한 7개향, 4개진

- 흑룡강성: 영안시, 목단강시, 상지시, 할빈시, 상지시에 소재한 5개향, 3개진

- 요녕성: 심양시, 철령시, 무순시, 안산시 지역의 5개향, 3개진

단, 중국에서도 도시구역내에서는 대부분 집합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 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상의 시지역을 가리키며 도시내의 집합주택은 이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조사를 시작할 때 조선족 주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 외에도 중국으로 이주하기 전 출신지역의 주거형태와 현재의 주거형태와의 관계, 주된 생산작목과 주거형태의 관계, 주변의 한족주거와의 관계, 행정적인 규제나 제도에 의한 영향과 아울러 도시화, 현대화에 의한 영향 등에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워 조사에 임하였다. 물론 이 논문에서의 시각은 광역적,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 보려는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마을을 두고 보아도 각 주택의 공간구성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공간구성의 패턴은 일정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패턴을 찾고 그 분포특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II. 조선족의 이주 및 분포현황

현재 중국에는 약 192만명정도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그중 180여 만명¹⁾이 동북 3성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 이들의 국적은 중국인으로서 중국내 여러 소수민족 중의 하나이지만 자치주, 자치현과 같은 집거구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면

산거지구에서도 민족자치향과 자치촌을 형성하여 조선족 특유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조선족이 중국에 이주한 역사와 경로 등에 대해서는 학자나 문헌에 따라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예를들면,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9세기 중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는 역시 사학자들이 정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는 일단 조선족이 현재의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간도지역에 본격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1860년대 이후의 주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기록에 의하면, 1860년대 간도지방의 조선족 수는 약 77,000여명에 이르던 것이 일제가 조선권을 점령한 이후 조선족의 이주가 급증한 것

<표 1> 조선족 인구의 변화 (1910-1944)

연도	인구 수			
	50	100	150	200
1910	■			
1915	■			
1920	■			
1925	■			
1930	■	■		
1935	■	■		
1940	■	■	■	
1944	■	■	■	■

에는 60만 7천명, 1940년에는 145만명, 1944년에는 165만 8천명으로 급증되었으며 이들이 바로 오늘날 중국 조선족의 이민 1세 내지는 이민 2, 3세대인 것이다. 이들은 현재 중국내에서 1개의 자치주와 1개의 자치현, 43개의 자치향을 가지고 있는데 (1994년 현재), 여기서 자치주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자치현은 장백 조선족 자치현을 가리킨다.

<그림1>은 조선족 자치주, 자치현, 자치향의 분

1) 1994. 11의 길림신문 보도에 의하면, 동북3성의 조선족 총인구는 186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길림성 118만명, 흑룡강성 45만명, 요녕성 2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省별로 보면, 길림성에는 자치주 1, 자치현 1, 자치향 12개, 흑룡강성에는 자치향 19개, 요녕성에는 자치향 12개로서 전체 43개의 향이 구성되어 있다. 동북 3성을 두고 볼 때, 조선족의 전반적인 분포의 특성은 논농사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강을 끼고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 볼 때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갈수록 분포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조선족자치주, 자치현, 자치향의 분포

Ⅲ. 주거공간의 구성형태

<표 2>는 조사지역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기술한 조사지역에서 1차 각 마을의 대체적인 주거공간 구성형태를 살펴 본 후 정밀 표본조사를 한 사례수는 46개 평면이었는데 이 중 대표적인 16개를 표로 나타내었다. 조사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평면구성의 유형은 크게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여기서 각 유형에 <합경도식>이니양통집이니 하는 어떤 명칭을 붙이지 않은 것은 앞으로 조사할 생활조사를 통해서 공간구성의 원리와 공간구성의 연쇄구조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연구를 수행한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함이다. 우선 물리적인 공간구성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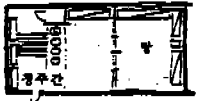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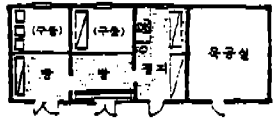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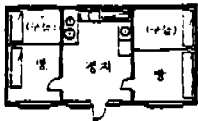

1) <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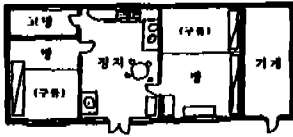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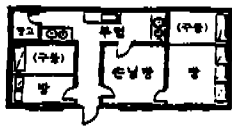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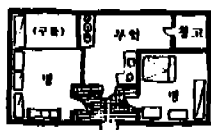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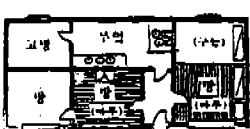

부엌, 정주간, 방의 구성이 다른 유형과는 크게 다른 형이다. 이 형에서 부엌은 솔이 걸린 부분으로서 바닥은 대게 흙이며 그 일부는 바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물론 바당부분은 정주간과는 레벨차이가 있어 기능적인 분화가 이루어진다. 집의 주 출입은 이 부엌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여기서 신을 벗고 정주간,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바당에는 정주간과 동일한 높이로 간이 개폐식 마루판을 설치하여 정주간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정주간은 음식물의 조리, 배선은 물론 주부 중심의 제반 가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벽쪽에 수도, 펌프, 물 독, 설겄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난방방식은 일부 도시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 취사와 난방을 겸하고 있으며 정주간에서 각 방까지 구들을 통해서 바닥난방을 하고 있다. 방은 2개 내지 4개인 것이 기본형인데 방과 방사이는 일부 벽으로 고정된 것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변식 미닫이문 또는 아예 완전 개방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용정, 돈화 지역은 여름, 겨울 2차에 걸쳐 조사하였는데 계절에 관계 없이 방과 방사이가 개방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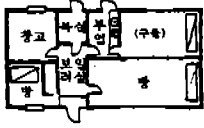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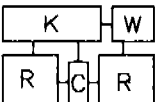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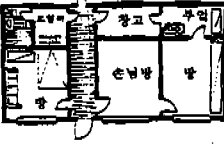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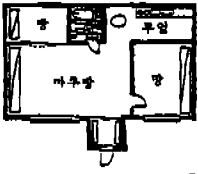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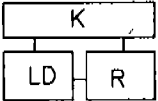
2) <나>형

이 형태는 <가>형과는 달리 정지와 방이 완전히 분화되어 있는 형이다. 방의 구조도 침대높이 정도의 구들이 방의 1/3내지 1/2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을 신고 방에 들어가는, 소위 입식생활형이다. 이러한 구들방식은 한쪽의 난방방식인 캉과도 유사한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주택의 주 출입은 정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정지에서 방으로 이어진다. <표 2>의 (NO 4), (NO 5)의 경우, 방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고 구들은 시멘트 마무리였다. 특히 (NO 5)의 경우는 2개 방의 구들이 연속되어 있다. 각 방에의 출입은 여름에는 외부에서 각 방에 직접 출입할 수 있으며 겨울에는 문을 폐쇄시켜 정지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었다. 이것은 실내의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라고 본다.

<표 2> 조사지역의 주거공간의 구성형태

NO	위치	면적 (m ²)	평면형태	평면구성 유형	건축적 특징
1	<흑룡강성> 발해진 상경촌	50		R: 방(안방,웃방,아랫방) K: 부엌(정지, 부엌) L: 거실(마루방) C: 복도, 통로 W: 위생소(변소제외)	1956년경에 건립한 초가집으로서 1동 2세대 연립주택임. 정지바닥의 널판지를 들면 아궁이가 되며 숨거는 면과 방의 레벨이 동일하다.
2	<길림성> 용정시 해란강변 동성촌	85		R + K <가> 형	70년전 함경북도에서 이주왔으며 주택에 조그마한 가게를 내었다. 이 마을은 조선족 시범부락임
3	<길림성> 화동시 용수진 심민촌 7대	80			1972년도에 건축하였으며 방 3개를 개방하여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정주간에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주간 앞 공간을 현관같이 사용하고 있다.
4	<흑룡강성> 상지시 하동향 남흥1대	45			흙으로 지은 초가집이며 좌우편에 좁은 헛간이 있음. 방에는 침대높이 정도의 구들이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 경상도 출신임
5	<흑룡강성> 상지시 주변	85		R R K <나> 형	주인이 목수. 집은 초가, 흙집이며 정지, 2개의 방바닥면이 모두 흙으로 되어 있고 구들면은 시멘트 마감이다. 정지에서 2개방의 구들을 덮힌다.
6	<요녕성> 심양시 위홍구 대흥공사 서교촌	75			기와집. 주인은 평안도 출신. 땀감은 벗짚을 사용하며 정지가 넓다. 방바닥은 비닐장판이며 침대높이 정도의 구들이 있다.
7	<요녕성> 철령현 요보진 우이촌	54			흙집이며 뒷 텃밭이 넓다. 정지가 넓으며 흙바닥인데 출입구 부분에는 일부 적벽돌을 깔았다. 좌측방은 현재 공간으로 창고같이 사용하고 있다.

NO	위치	면적 (㎡)	평면형태	평면구성 유형	건축적 특징
8	<요녕성> 안산시 주변 농촌마을	100			가게가 붙어 있고 방, 정지가 넓다. 구들은 좌측방은 남쪽, 우측방은 북쪽에 있다. 식사는 정지 식탁에서 하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선족과 한족의 절충식 같았다.
9	<요녕성> 심양시 주변 농촌마을	100		R K R <다>형	1952년에 지었는데 양 측면에 헛간을 달았다. 정지 안쪽에 작은 정지를 달아낸 것이 특이하다. 전면 뒷발을 가로질러 건물에 출입한다.
10	<요녕성> 심양시 금가촌	72			평안북도 출신. 복도를 통하여 각 실이 연결되며 부엌이 안쪽에 있는 양통형이다. 벧짚, 강작을 때며 석탄도 사용한다. 손님방은 식사, 대화 등 일종의 거실 역할을 한다.
11	<요녕성> 철령현 신평촌	75		K R C R	지은지 16년 되는 기와집. 석탄을 사용하며 좌측방은 구들, 우측방은 온수 보일러로 난방을 한다. 취사는 주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 뒷발이 넓다.
12	<길림성> 교하향 우이촌	85		<라>형	적벽돌 조적조. 현관 출입구 좌우측 방은 바닥이 마투판인데 활동하기 좋고 손님이 많이 왔을 때 편리하다고 한다. 석탄을 사용하며 좌측방은 온수 보일러를 사용한다.
13	<흑룡강성> 목단강시 도시 근교 농촌마을	100			지은지 4년된 기와집. 중앙통로를 통하여 각 실이 연결되며 좌측방은 구들식, 우측 방들은 온수 보일러로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 입구 우측 첫째 방은 거실의 역할을 한다.

NO	위치	면적 (m ²)	평면형태	평면구성 유형	건축적 특징
14	<흑룡강성> 북단강시 강남촌	85		 <마>형	현관 좌측방은 보일러, 우측방은 구들. 석탄을 사용하며 욕실이 설치되어 있다(변소는 외부). 우측 방은 2개의 방을 하나로 만들어 거실과 구들방으로 겸용하고 있다.
15	<요녕성> 심양시 위홍구 대홍공사 서교촌	85		<마>형	최근에 지은 집으로 구들이 없고 온수 보일러로 난방을 한다. 식사는 좁은 부엌의 식탁에서 하며 난방과 취사가 분리되어 있다. 욕실이 있으며 우측 첫째방은 T.V가 있고 거실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16	<요녕성> 심양시 위홍구 대홍공사 서교촌	75		 <바>형	한국식을 모방하여 지었다고 함. 온수 보일러를 사용하여 바닥난방을 하고 있다. 현관을 독립시키고 거실, 욕실 등 한국의 도시 단독주택과 비슷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3) <다>형

이 형은 정지가 가운데 있으며 크고 넓는데 (NO 8),(NO 9)에서는 식탁을 정지에 두어 식사를 하고 있었다. 벧짚을 뿔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지 양쪽에 거의 동일한 크기의 구들방이 있으며 이 구들에 불을 때기 위하여 부뚜막이 양측에 설치되어 있다. 정지 바닥은 원래 흙이며 신을 신은채로 방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근래에는 방 바닥에 비닐장판을 깔아 신을 벗고 들어가도록 한 경우도 많았다. 주변의 한족 주거도 조사하였는데 공간구성의 기본적인 틀은 거의 비슷하였다. 주민들의 말대로 한족식, 조선식의 구별은 구들 형태가 일부 다른 점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

4) <라>,<마>형

이 형은 3省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우선 부엌을 통해서 각 실을 연결하던 방식과는 달리 중앙에 통로를 두어 연결하므로써 부엌을 취사의 장소로서 독립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실은 고정된 벽으로서 구획되어 있으며 출입구 부분의 방 하나는 거실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중앙에 통로를 두면 각 실에 독립성을 줄 수는 있지만 한 부엌에서 여하히 양측 방에 난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 크게 두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NO 10, 11, 12)형은 부엌을 안쪽 중앙에 두어 양측 방에 접하고 있는데 반해 (NO 13, 15)형은 부엌이 통로의 어느 한 쪽에 밖에 접할 수 없는 형이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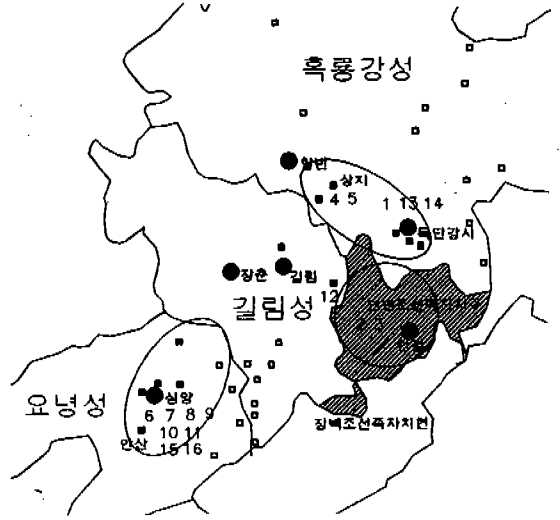
는 부엌이 길어지는 것 외에는 난방에 큰 무리가 없으나 후자의 경우는 부엌이 없는 측은 별도의 난방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이들 형태에서는 별도의 보일러 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연료는 석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난방의 불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와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각 실의 기능분화는 물론 여름철에 통풍이 좋고 뒷 쪽 텃밭에의 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형의 경우는 기본형은 <라>형과 같으나 실내에 욕실이 들어 온 점에 차이가 있다. 물론 이 경우도 변소는 옥외에 두고 욕조, 세면기 정도만 설치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하수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과 변소를 옥내에 두지 않는다는 고정관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지역 일부에서는 마을 공동변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6) <바>형

최근 일부 조선족사회에는 한국 붐이 일고 있는데 (NO 16)은 한국의 주거를 모방하여 거의 그대로 이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주인이 한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들여 이 집을 지었다고 하며 이 마을에서는 이 집을 한국집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부엌이 지나치게 작고 거실에 해당되는 마루방이 그 기능에 비해 너무 크게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을 <NO 15>와 비교해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난다. 즉, 겹집에서 안 쪽 열이 좁은 이 지역 공간구성방식의 틀을 유지하면서 각 부분을 한국식으로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 곳곳에서 주거의 신축, 개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식의 온수난방 방식이 도입되는가 하면 한국식의 아파트형이 보급되는 등 한국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형은 그 하나의 예인 셈이다.

IV. 주거 공간구성형태의 지역분포

<그림 2>는 앞에서 다룬 공간구성형태의 지역



<그림 2> 주거공간 구성형태의 지역분포현황

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종합적인 연구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왜 거기에 분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여기서는 그 분포의 실태를 정리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가>형은 연변조선족 자치주 일대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그 범위는 연길시를 중심으로 동측의 훈춘, 도문시, 서측의 용정시, 화룡현일대, 서북측의 둔화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일단 흑룡강성에 들어서면 연변과 접한 발해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둔화시. 이북의 경우에서도 볼 수가 없었으며 요녕성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말대로 이 형은 소위 <연변식>으로 정착되어 있는 듯하다. 물론 이 형은 함경도의 양동형주거와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형은 흑룡강성 목단강시 이북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 주민들의 상당수가 경상도지방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보아 이들의 출신지역주거와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것 역시 좀더 연구를 진행한 후에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형은 요녕성의 심양, 안산, 철령, 무순 등

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황해도, 평안도 출신자들을 많았다. 조사는 조선족만으로 이루어진 마을과 조선족, 한족이 섞여사는 마을 양측을 택하여 실시하였는데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라><마>형은 3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근래에 신축하는 주택에서 많았다. 이러한 형태가 가능한 것은 일단 주거의 규모가 커지고 보일러가 널리 보급됨과 관련이 크다고 본다.

<바>형은 심양시 주변지역에서 볼 수 있었는데 한국과 교류가 많은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대도시, 예를들면, 길림, 장춘, 할빈 주변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상에서 지역분포를 간략하게 기술하였는데 여기서 크게 몇가지 점은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조선족 주거형의 분포를 볼 때,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형과 그 외의 형이 지역적으로 크게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며 후자의 경우도 심양시를 중심으로 한 요녕성 일대의 형과 연변지역을 제외한 길림성 및 흑룡강성 일대의 주거형이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연변지역의 주거는 한족 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이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는 한족 주거와 유사한 면이 많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족 주거 역시 난방 및 취사연료의 변화, 도시화의 경향, 한국과의 교류에 의한 영향등으로 빠르게 변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지역성을 벗어나 보편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V. 결 론

중국 동북 3省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는 그들이 처한 이민족 사회에서의 문화적 충돌 내지는 갈등, 교류라는 제반 특성을 파악하지 않으면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복합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객관적인 자료외에는 가능한 한 어떤 단정이나 결론적인 언급을 자제할

것도 바로 이와같은 이유에서였다. 이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지역에 따라 몇가지 다른 공간구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지역에 정착한 조선족의 출신지역과도 관련이 깊다고 본다.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다른 학문분야에서 보고한 조선족의 이주 경로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관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 설정한 몇가지 가설 중의 하나로서 이들이 비록 이문화권에 이주했다 할 지라도 그들의 생활양식까지 전부 바뀌는 것은 아니며 그 상당부분이 유지된다고 보면, 그러한 생활양식이 주거 공간구성에 직접 간접으로 투영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변지역과 그 외 지역의 공간구성 형태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연변지역은 함경도형의 영향을 크게 받은 형태로서 주변의 한족 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공간구성을 갖고 있다. 그 한 예로서 입식생활 구조의 한족 주거와 좌식생활형의 조선족 공간구조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심지어 한 아파트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를테면, 조선족은 부엌부분의 레벨만 낮추고 다른 부분은 같은 레벨로 하여 바닥 전체를 난방하는 온돌식인 반면에 한족의 것은 방에 침대높이의 칸을 설치하고 신발을 신은 채로 방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연변지역 이외의 주거형은 한족 주거와 절충된 듯한 구조가 많이 나타난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변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사한 면이 많다는 것이지 이들간의 차이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이와같이 연변지역 주거와 달리 한족식과 유사한 면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이들이 이주, 정착하는 과정이 연변지역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회적인 문제 외에도 이들의 출신지역이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 후에 정리하기로 한다.

셋째, 각 지역 모두 근대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간구성의 변화만을 두고 볼 때 두가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그 하나는 지역성의 틀 속에서 일부 공간을 개조하는 형이고 또 하나는 지역성을 탈피한 소위 현대식 주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전자의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대도시 주변에서는 후자의 경우도 많이 발견되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비단 중국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고 주거 현대화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종래의 연료 즉, 땃길이나 장작, 석탄 위주에서 최근에는 가스, 전기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주거의 공간구성은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도시 주변의 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의 온수난방방식, 소위 LDK형 도시 주거공간구조 등이 일부 보급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경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조선족 주거의 공간구성형태와 그 분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는데 이를 토대로 어떤 형의 주거가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추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므로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광택, 연변조선족 민가, 조선족민속연구 제1권, 延吉, 1993.
- 리화선, 조선건축사(1)(2)(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평양, 1989.
- 박경휘, 조선족민속연구, 료녕민속출판사, 瀋陽, 1987
- 심혜숙, 중국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 연변대학출판사, 延吉, 1993.
- 김영모(편), 중국 조선족 사회 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 민족출판사, 봉화 (중국 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3), 북경, 1989.
-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집필소조, 연변조선족 자치주개황, 연길:연변인민출판사, 1984.
-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출판사, 1993
- 조선족역사족적편집위원회, 풍광(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7), 중국:민족출판사, 1993
- 연길시통계국, 95년 연길통계년감, 중국: 중국통계출판사, 1995
- 김봉렬,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의 마을과 주거, 건축역사연구, 제3권 1호, 1994
- 강영환,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의 주거공간 및 생활방식, 건축역사연구, 제3권1호, 1994

